야시장, 글로벌 플리마켓 변신

익산 중매서 야시장·청년몰과 함께 도시재생 상생위한 콜라보 행사

익산시 중·매·서(중앙·매일·서동시장) 야시장이 글로벌 플리마켓으로 변신한다.

익산글로벌문화관은 제2회 글로벌 플리마켓 & 야시장 'hug'를 오는 19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글로벌 플리마켓'은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 콘텐츠로 시작 전부터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야시장 개장식인 19일 콜라보로 진행해 익산글로벌문화관이 위치한 구도심으로 축제를 확장, 중앙·창인동 명성을 되살리는 상생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공감과 포용'을 주제로 문화 프로그램, 축하공연,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돼 내·외국인이 지역사회 축제에 자연스럽게 참여,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글로벌 플리마켓 & 야시장에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한국 등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모여 각국의 공예품과 길거리 음식, 이국적인 전통음식 등을 선보이며 세계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타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익산글로벌문화관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야시장 개장식은 이날 오후 5시 중앙시장 주차장 메인 무대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공연 및 원조 댄스가수 박남정 등 초대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야시장은 포장마차 등 가성비 높은 먹거리와 야시장·청년몰 이용 고객들을 위한 달고나·팝콘·솜사탕 등 추억의 먹거리(무료)가 제공되며 어린이를 위한 초대형 에어바운스, 포토존, 트릭아트, 스마트폰 홀로그램 체험 등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상호 존중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친구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기업수요형 산업인력 양성 박차

24일까지 교육훈련기관 모집

익산시의 현장중심 일자리정책인 '기업수요형 인력양성' 사업이 교육훈련기관들의 참여로 본궤도에 오른다.

시는 산업현장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단기 교육과정 수료 이후 생산인력의 빠른 현장 투입으로 기업과 취업자 모두가 윈윈하는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업 현장형 인력을 양성할 교육훈련기관을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훈련기관은 지난 6월 기업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필요교육을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교육할 계획이다.

시는 평가를 통해 이달 말까지 현장교육 위주의 교과과정을 편성한 직업전문 훈련기관을 선정한다. 2개월 이내의 교과과정 편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에게 생산인력이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기업에 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기업수요형 산업인력양성은 익산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맞춤형 일자리공급 기본구상 지시를 토대로 신속히 이뤄졌다.

지역 내 산업단지 및 업종단체 등 여러 기업단체들과의 협의, 개별기업 설문조사 등을 거쳐 파악한 기업수요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확정했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빠르게 추진됐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실습 위주의 효율적인 단기 교육과정으로 그간의 국비 장기교육과정의 단점을 보완했다. 장기교육 중 훈련생 중도 이탈이나, 생활고의 문제로 기술교육을 쉽게 신청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극복해 원활한 구인 및 구직 활동을 적극 장려하도록 기획했다.

정헌율 시장은 "지역 우수한 교육기관에서 인재를 양성해도 지역특색 및 기업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대-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 상생발전 위한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정동원, 군산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과 원광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복경수)이 17일 원광대학교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목적은 대학교육을 SW중심으로 혁신해 학생, 기업, 사회의 SW경쟁력을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의 정동원 단장, 온병원 부단장, 이석훈 세부책임자, 정현준 세부책임자와 원광대학교의 복경수 단장, 정찬성 부단장, 김영남 과장, 고성현 센터장, 강윤정 센터장, 박혁규 원장, 소인미 센터장이 참석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SW중심대학사업 교육과정 개발, SW분야 인재양성 공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육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미래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소통체계 구축, SW 취·창업 상호협력 등 양 기관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 협약과 관련해 정동원 국립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산업 DNA를 갖춘 META형 AI·SW 융합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립군산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이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풍수해 감염병 예방에 총력

군산시보건소, 방역대책반 구성 개인위생 예방 수칙 준수 당부

군산시보건소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풍수해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감염병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매체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파상풍/렙토스피라증, 접촉으로 인한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30초 이상 손 씻기,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 먹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기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모기 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인물을 제거하고, 모기 활동 시간에 야외활동 자제하며 가정 내에서는 모기장과 모기약을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촉성 피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침수지역 작업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물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또,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피부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작업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고 작업 후에는 깨끗한 물로 오염물을 씻어내야 한다.

안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며 수건 베개 등 개인 소지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고, 눈에 부종,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풍수해 감염병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해 감염병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재민 임시거주 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 집단시설 및 침수지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풍수해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나바위 성당 전경

익산시, 4대종교 문화체험 힐링 성지순례 '출발'

치유와 체험을 결합한 '4대종교문화체험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하반기 힐링 성지순례길로 출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오는 9월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총 11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7일부터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 시작 열흘 만에 25%를 넘는 예약율을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4대종교성지(원불교총부, 나바위성당, 두동교회, 심곡사) 순례길 걷기, 종교성지 방문 및 해설과 아가페정원, 용안 바람개비길 등을 걸으며 힐링하는 여행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특히 다이로운 익산여행 기존 체험 후 만족함을 표현한 전국 참여자들의 재신청률이 높아 일회성 여행이 아닌 다시 방문하고 싶은 익산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프로그램은 선선한 가을 날씨에 맞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행으로 익산을 방문하는 참여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며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청소년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 개최

군산시가 마련한 대표 청소년 축제인 '2023년 청소년어울림마당-글로벌페스티벌'이 오는 19일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화려한 막을 연다.

여성가족부, 전북도,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글로벌페스티벌 축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감수성 및 재능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존, 워터존, 문화존 3가지 테마로 마련된 청소년 문화행사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기한 축제로, 청소년과 일반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장소를 은파호수공원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지역사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환경과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이 Green 축제, 에코페스티벌'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특이민원 발생 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군산시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군산시청 및 27개 읍·면·동 민원실에서 개별 보안업체와 합동으로 폭행. 폭언 등의 특이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상반기 경찰과의 합동훈련에 이어 개별 보안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됐으며, 폭행·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방문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요청 및 진정 유도, 상급자 적극 개입, 안전요원 호출 및 민원인 제지, 피해 공무원 격리와 방문 민원인 대피, 안전요원에게 특이민원인 인계 순으로 진행했다.

/군산=김판곤기자